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6월 18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1/4분기 경상수지 적자, 1년 반 만에 최대 규모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중국 기업부채 미국 추월, 회사채시장 세계 최대
- 2) 일본, 23개월 연속 무역적자 수입·수출 모두 부진
- 3) 영국, 중국과 140억파운드 경제협력 합의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AT&T, 아마존 스마트폰 독점 공급
- 2) 오라클, 마이크로시스템스 50억달러에 인수 임박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/4분기 경상수지 적자, 1년 반 만에 최대 규모

- o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는 1/4분기 경상적자 규모가 11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경상적자 규모는 GDP의 2.6%로, 2012년 3/4분기 이후 최대 적자 규모 기록
 - 이는 지난해 4/4분기 수정치인 873억달러보다 적자 폭이 크고, 시장 전망치인 969억달러 적자보다 규모가 확대된 결과
- o 1/4분기 수출은 1.3% 감소한 8033억달러를 기록
 - 전문가들은 1/4분기 수출 감소 요인으로 지난해 겨울 ‘혹한으로 인한 수출품들의 항구 적재’를 지적
- o 한편, 수입은 1.5% 증가한 9144억달러를 기록했으며, 소득수지는 지난해 4/4분기의 546억달러에서 1분기엔 467억달러로 감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중국 기업부채 미국 추월, 회사채시장 세계 최대

- o 지난 16일 FT는 국제 신용평가사 S&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비금융권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14조2천억달러로 미국의 13조1천억달러를 상회했다고 보도
 -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액은 전 세계 물량의 30%를 차지하며, 이 중 1/3은 규제 밖에 있는 그림자 금융¹⁾을 통한 것이라고 지적
- o S&P는 중국 기업은 차입의 1/3을 비공식적인 금융 부문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에, 글로벌 기업 부채의 약 1/10이 중국 그림자 금융 위축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
- o 한편, 전문가들은 2018년 말까지 전 세계 비금융권에서 60조달러어치 회사채가 발행되고, 이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

2) 일본, 23개월 연속 무역적자 수입 · 수출 모두 부진

- o 지난 18일 일본 재무성은 5월 무역수지가 909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억1893억엔을 하회하는 수치로, 지난해 적자인 5월 9981억엔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8.3% 감소
- o 5월 수출은 2.7% 감소한 5조6076억엔으로,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
 -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을 수출 감소 요인으로 지적

1) 그림자 금융: 투자은행, 헤지펀드, 사모펀드, 구조화 투자회사(SIV)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이르는 말

- o 5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.6% 감소한 6조5165억엔으로, 201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
 - 전문가들은 지난달 소비세율 인상이 수입품 수요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
- o 한편, 1/4분기 일본 GDP는 아베 신조 총리 재총리 취임 후 가장 높은 6.7% 증가를 기록

3) 영국, 중국과 140억파운드 경제협력 합의

- o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영국이 140억 파운드 규모 경제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
 - 140억파운드 경제 협력 가운데는 영국 에너지회사 BP가 중국 국유 에너지회사인 CNOOC에 20년간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
- o 또한 중국 최대 민간 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가 런던에 유럽 본부를 설립해, 금융서비스, 신에너지, 환경보호 산업 분야 등에 15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
- o 한편, 영국정부는 중국 관광객과 기업인에 비자 규정을 완화하고, 첨단기술 및 창조경제 분야 자국 기업의 중국 진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AT&T, 아마존 스마트폰 독점 공급

- o 지난 17일 WSJ은 미국 이동통신사 AT&T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첫 스마트폰을 독점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 - 아마존은 이미 AT&T를 통해 태블릿PC 킨들과 전자책 단말기 e-리더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공급해 왔음
- o 아마존은 18일 미국 시애틀에서 언론사와 개발자 등을 초대 한 자리에서 첫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
 - 아마존의 스마트폰은 특수 안경 없이도 3D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짐
- o 한편,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 18% 하락한 바 있음

2) 오라클, 마이크로시스템스 50억달러에 인수 임박

- o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소프트웨어 제조회사 오라클의 마이크로시스템스 인수가 임박했다고 보도
 - 오라클은 현재 마이크로시스템스를 50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마이크로시스템스는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주요 고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음

- o 전문가들은 지난 10분기 동안 성장세가 부진했던 오라클의 새로운 시장 공략의 돌파구로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주요 고객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
- o 한편, 이날 M&A 가능성이 언급되며 뉴욕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시스템스 주가는 장중 한때 22% 급등, 2009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냄. 끝.